

마동석이 타도 넉넉한 '모하비'... 승차감도 좋아졌네

기아 대형 SUV '2024 모하비' 시승기

단단한 외관에 정숙함·승차감 향상... 시야 확보도 수월
충돌방지 자동제어 시스템 기본... 5054만~5993만원

마동석이 타도 넉넉한 차. 액션 영화 '범퍼돌스 3'에서 주인공 마석도(마동석)가 동료 형사인 김만재(김민재)와 탔던 차가 기아의 '모하비'다. 영화 속 모하비는 알아주는(?) 덩치 배우 마동석이 타도 전혀 좁거나, 작게 느껴지지 않았다. 역시 '한 덩치'하는 필자가 타도 넉넉함을 자랑했다.

최근 기아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모하비'를 시승했다. 시승 모델은 '더(The) 2024 모하비 더 마스터'로 트림은 디젤 5인승 3.0 4WD 마스터즈다. 선택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루프, 렉시콘 팩 등이다.

이번 시승은 최근 광주에 문을 연 '기아 플래그십 스토어 광주'에서 진행됐다.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시승 체험을 신청한 뒤 본격적인 시승에 나섰다. 시승은 당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광주 도심 주행을 하는 16km 구간 1시간 코스였다.

사실 기아의 모하비는 단종설이 나돌면서 '골물 모델'로 꼽힌다. 쏘렌토와 산타페 등 중형 SUV와 EV9이라는 대형 전동화 모델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는 모하비는 전동화 흐름에 따라 점차 설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시승 모델로 모하비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의 매력을 지니

고 있기 때문이다. 시승 전 외관을 살펴보면 '역시 단단하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각진 형태의 바디 라인과 우람한 풍채는 모하비 특유의 강인함이 풍겼다. 모하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유일한 바디 온 프레임 모델로, 그만큼 단단하고 안전하다는 강점이 있다.

내부에 올라타니 널찍한 실내공간 덕분에 운전석에서의 움직임이 편했다. 실내는 12.3인치 LCD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했다.

요즘 출시되는 차량에 적용되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아니었으나, 시인성은 나쁘지 않았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시스템의 조작 패널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간결했고, 우드톤의 내장 디자인은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시동을 걸고 주행에 나섰다. 오랫동안 모하비의 단점은 승차감이었다. 바디 온 프레임 모델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랄까.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확 달라졌다. 차체인 바디와 골격인 프레임이 연결하는 '사시 프레임 마운트'의 강성을 높이고, 속업소버의 기능을 향상시켜 정숙함과 승차감을 향상했기 때문이다. 이날 도심 주행에 있어서도 모하비는 고급스



러운 승차감을 보였다. 특히 가장 좋았던 부분은 높이와 시야였다. 기존 중형 SUV 차량에 비해 30cm는 더 높은 곳에 앉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덕분에 주행 시 시야 확보가 용이했다. 무엇보다 사이드미러 또한 '거대(?)'해 후방 시야 역시 확보하기 수월했다. 이래서 큰 차를 타나 싶을 정도로 대형 SUV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모하비의 강점은 6기통 V6 디젤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웅장하고 부드러운 엔진음이 매력적이었다. 최고출력 257마력 최대토크 57.1kg·m 등 성능을 발휘하고, 각종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도 적용되지만 이날 짧은 도심주행 여건상 성능을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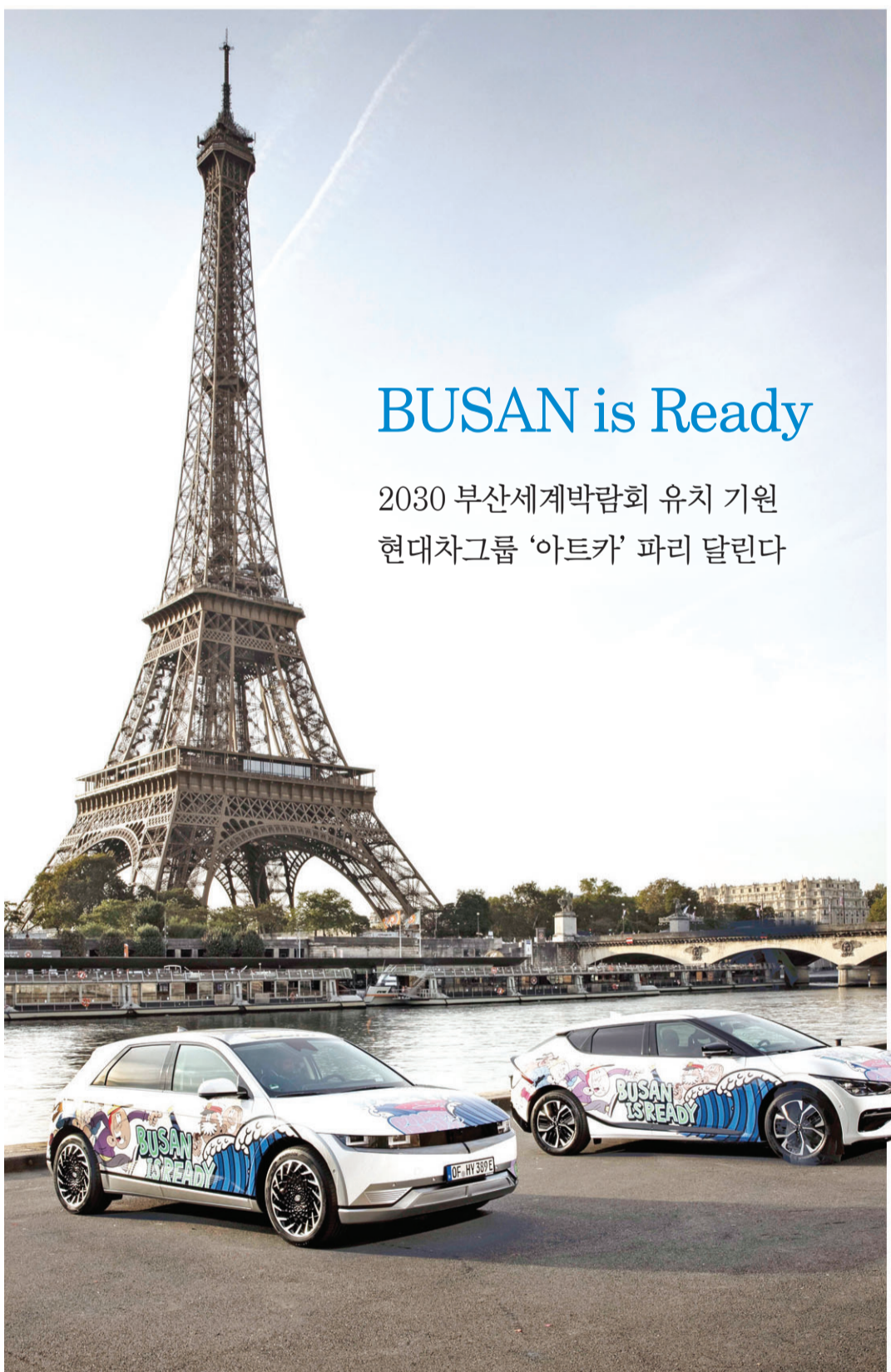
기아는 모하비에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제동하는 '다중 충돌



기아의 대형 SUV 모델 '더 2024 모하비 더 마스터'. 각진 형태의 차체와 우람한 풍채로 단단한 인상을 풍긴다. 왼쪽은 내부 모습.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MCB)과 2열 이중접합차음 글라스, 애프터 블로우 등 안전 및 편의사양을 기본화했다고 한다. 한편 2024 모하비는 ▲플래티넘 ▲플래티넘 그

래비티 ▲마스터즈 ▲마스터즈 그레비티 4가지 트림으로 운영되며, 가격은 5054만~5993만원 상당이다. /글·사진·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BUSAN is Ready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현대차그룹 '아트카' 파리 달린다

부산엑스포를 알리는 현대차그룹 아트카 차량이 파리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부산을 알리는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특별 제작한 아트카가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를 달리며 막판 유치전에 힘을 더한다.

현대차그룹은 9~15일(현지시간) 부산엑스포 심포지엄, K-POP 콘서트 등 파리에서 개최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행사 기간에 K-컬처 아티스트와 협업한 아트카 10대를 활용해 부산세계박람회 알리기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갈매기, 광안대교 등 부산의 주요 상징물과 'BUSAN is Ready' (부산은 준비되었습니디)라는 슬로건을 감성적이고 컬러풀한 그래픽 디자인으로 랩핑한 아트카 차량 10대를 한국 대표단에 제공한다.

이번 부산엑스포 심포지엄은 BIE 회원국 관계자를 초청해 부산엑스포에 대한 깊이 있는 담론과 부산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시하는 장으로, 오는 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BIE 회원국의 막판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현대차그룹은 부산엑스포의 차별화 포인트인 '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엑스포'를 강조하기 위해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상식을 석권하고 있는 아이오닉 5, EV6 등 전용 전기차 2종을 아트카 차량으로 선정했다.

한국 대표단이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부산엑스포의 비전을 강조하며 치열한 유치 활동을 펼치는 동안, 장외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아트카 차량이 부산의 비전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움직이는 홍보 대사가 되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아트카 차량은 부산엑스포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파리 파빌리온 가브리엘 및 K-POP(팝) 콘서트가 열리는 라데팡스 아레나 주변을 비롯해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등 파리 주요 명소를 순회하며 BIE 회원국 주요 인사는 물론 파리를 찾은 전세계 관광객들에게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그룹 아트카 차량은 지난달 미국 뉴욕,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연이어 주목을 받으며 부산의 매력과 세계박람회 개최 의지를 알린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부산만의 매력을 알리려 막판 유치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수입차도 불경기 났나

지난달 국내 판매량 2만2556대... 전년 대비 5.7% 감소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이 국내 경기 침체 여파로 작년 동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 9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작년 같은 달(2만 3928대)보다 5.7% 감소한 2만2565대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전년(2만3350대)보다는 3.4% 줄었다.

정운영 KAIDA 부회장은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신차출시를 앞둔 재고 소진 등으로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경기 침체 여파가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해석이다.

브랜드별 등록 순위(테슬라 제외)에서는 벤츠가 6971대로 BMW(6188대)를 근소하게 제치고 전월을 이어 두 달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볼보(1555대), 아우디(1416대), 폭스바겐(1114대)이 3~5위를 차지했다.

연료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가솔린(9588대), 하이브리드(6779대), 전기(3339대), 디젤(1904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955대) 순으로 팔렸다.

특히 전기차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7.0% 줄었는데도 판매 점유율 16.8%를 기록하며 디젤차(9.3%)를 크게 앞질렀다.

올해 들어 부진을 면치 못했던 '강남 쏘나타' 벤츠 E-클래스가 3511대가 팔리면서 베스트셀링 모델에 올랐다. 이어 볼보 XC60(899대), BMW 3시리즈(868대), 벤츠 GLE(693대), 아우디 A6(571대)가 2~5위를 차지했다.

국가별 브랜드 판매량은 유럽 1만9633대(87.0%), 일본 1733대(7.7%), 미국 1199대(5.3%) 등의 순이었다.

구매 유형별로는 개인 구매가 61.7%, 법인이 38.3%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



버스월드 2023 이베코버스 부스에서 전시 중인 수소전기 시내버스 'E-WAY H2'와 버스에 탑재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현대차 제공>

현대차, 수소전기 시내버스 세계 첫 공개

이탈리아 이베코그룹 협업

현대차는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버스 박람회인 '버스월드 2023'(Busworld 2023)에서 이베코그룹(Iveco Group) 산하의 버스 브랜드 이베코버스(Iveco Bus)와 함께 'E-WAY H2'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앞서 현대차는 이베코그룹과 지난해 3월 탄소 중립을 앞당기겠다는 목표 아래 '공동 기술 및 상호 공급 기회 탐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친환경차 관련 협업 가능 분야를 적극 검토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에는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인 'IAA 하노버 상용차 박람회'(IAA Transportation 2022 in Hannover)에서 긴

주행거리와 높은 적재량을 갖춘 대형 밴 'e데일리 수소전기차'(eDAILY FCEV)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공개된 'E-WAY H2'는 12m 길이의 수소전기 저상 시내버스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이베코그룹 산하 파워트레인 전문 브랜드인 FPT 인더스트리얼(FPT Industrial)의 배터리팩을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50km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E-WAY H2'에 탑재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경우 2020년 공개된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며 제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렉서스코리아 전 차종 시승해 보세요 31일까지

렉서스코리아가 이달 렉서스 전 차종을 경험할 수 있는 전국 시승회를 진행한다.

렉서스코리아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렉서스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렉서스 10월 전국 시승회'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승회에서는 지난 6월에 새롭게 출시한 렉서스 프리미엄 순수전기차 'RZ'를 비롯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터보 엔진 하이브리드 등 3가지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5세대 완전 변경 'RX'를 체험해볼 수 있다. 이밖에 렉서스 베스트셀링차 'ES' 등 렉서스의 다채로운 전동화 모



델을 직접 타고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승회 기간 중 시승을 예약하고 11월 5일까지

시승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2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1명)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2명) ▲신세계 상품권 3만원(3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강대한 렉서스코리아 상수는 "고객분들이 렉서스가 제안하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시승회를 준비했다"며 "다채로운 파워트레인이 빛나는 렉서스 드라이빙 시그니처를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